

주임신부 :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 권병학 요한 사도
 TEL : 905-545-3004

사순시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 11,25)

2026년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 3/22(일) 사순 제5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 3/24(화) 사순 제5주간 화요일 미사 (본당 20:00)
- ▶ 3/25(수) 사순 제5주간 수요일 미사 (11:00)
- ▶ 3/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매주 금요일 19:30)

3/27 복사단
 해설-최다혜 플로라, 십자가 복사-이준환 파비아노
 초복사-최다인 안나, 최아현 베로니카
 4/ 3 구역장

◎ 성삼일 미사 및 부활 대축일 미사 전례회의

전례회의: 3/24일(화) 미사 후 (전례부, 성가대, 해설단)
 전례연습: 3/29일(일) 미사 후 (전례부, 복사단, 해설단)

◎ 성 목요일 구역별 성체조배 시간표

시간	구역	시간	구역
9:00-10:00	공소	2:00-3:00	7구역
10:00-11:00	2구역	3:00-4:00	6구역
11:00-12:00	3구역	4:00-5:00	5구역
12:00-1:00	1구역	5:00-6:00	신부님, 전례부
1:00-2:00	4구역		

* 묵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시니어 소득 신고

65세 이상 교우분들(공소포함)의 소득 신고를 위해
 이승우 리차드 형제가 수고해 주십니다.
 서류는 다음주(3/29)까지 재정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주일미사	주일 11:00 (본당)
	주일 17:30 (공소)
평일미사	매주 (화) 20:00
	매주 (수) 11:00
	매월 첫 (목) 19:00
성모신심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미사 중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마다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 / 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학교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일요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3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바뇌 기도회	매월 1,3주(토)10:00
울드레야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 부활 맞이 대청소

오늘(3/22)은 부활 맞이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 성인 이야기는 <성 시몬>입니다.
 다음주는 <성 안드레아>입니다.

◎ 사목회의

3/27(금) 오후 8시에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전삼용 신부님의 요한복음<진리, 그 자체를 만나다> 미주평화신문 기획강좌 시리즈11

일시: 4월6일-5월25일 매주 월요일 20:00-21:30(총8회)
 수강방법: ZOOM ID: 813 360 8420 Passcode: 12345
 수강료: \$30(USD) + 기부금/ 카드결제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참조하여 주십시오.

단체 소식

◎ 부활 대축일 행사 경품 및 기금 후원 안내

후원내역: 기금 및 행사 경품용 물품(상품권, 생활용품)
 접수 마감: 3/29(일)
 접수담당: 행사분과 또는 본당 사무실
 문의: 행사분과장 채병두 베네딕도 289-990-5375
 행사분과 차장 이지훈 다니엘 905-962-5047

공소 소식

◎ 십자가의 길 안내(사순시기)

3/22 오후4시40분

◎ 3월 축일자

3/30 김재근 조시모

친교식사

오늘 친교식은 5구역에서 “배추 된장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29: 가정주일 4/5: 부활대축일 4/12: 6구역

구역 모임 소식

이달의 묵상 주제 ‘하느님의 영광’ (요한 11, 1-45)
 6구역: 3/28(토) 이창전 프란치스코 18:00
 7구역: 3/28(토) 김준홍 그레고리오 17:30

사순절의 기도

이해인 수녀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굳어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군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항거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40명)			
주일헌금	\$1,460	교무금	\$70
특별헌금	\$20	성전건립	\$675

감사합니다

성모회 도네이션: \$50 이영순 헬레나
 주일학교 도네이션: 이인선 쟈마
 행사분과 도네이션: \$100 민연환 테레사

◎ 3월 축일자 (8명)

- 3/ 1 알비노(황창환)
- 3/ 7 테오필로(이정길)
- 3/12 세라피나(임선녀)
- 3/19 요셉 (정시안, 조운구, 조운형, 이인규)
- 3/25 그라시아(김경희)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3/22	권희진 요안나	이준우 바오로, 이준서 요한	1독서: 유세진 라파엘 2독서: 김규리 라파엘라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환 파비아노
3/29	박규혜 카타리나	십자가: 이준환 파비아노, 향/향합: 최다혜 플로라, 이소민 그레이스 정복사: 최다희 보나, 김규리 라파엘라	1독서: 이지훈 다니엘 2독서: 임연신 비아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4/ 5	임연신 비아	정복사: 최다인 안나, 김규리 라파엘라 향/향합: 최다혜 플로라, 최다희 보나 초복사: 이지민 이사벨라, 이소민 그레이스	1독서: 김성수 베드로 2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결자해지, 그게 나왔구나.”

서진영 미카엘 신부
병영성당 주임

눈이 아릴 정도로 햇살이 빛나는 어느 여름, 빨래 말리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마침 여름 신앙 학교를 마친 뒤라 주인 잃은 수건들을 빨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건들을 널다 보니 건조대에 자리가 부족했고,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전 뒤편 은행나무에 새로운 빨랫줄을 묶었습니다. 바람에 날릴까 촘촘하게 집게까지 정성껏 집어 두었지요. 기분 좋은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은 가고, 어느 겨울 같은 자리에 서서 모처럼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나간 시간만큼 빠른 것은 없지요. 스무 살, 신학교 1학년이었던 제가 부제품을 받고 사제서품을 준비하며, 활기찼던 그 여름의 추억에 잠겨 성전 뒤편을 서성이다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걸었던 빨랫줄이었습니다. 주홍색 나일론이 얼마나 질기고 좋은지 10년이 되어가도 빛은 바랬지만 여전히 잘 걸려 있었습니다. 다만 눈길에 줄을 따라 묶인 나무동치에 닿는 순간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묶어둔 그 줄 때문에 나무동치가 온전히 자리지 못해 생장의 숨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주의함이 그 오랜 기간이 나무를 힘들게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참 편하게 지냈구나, 바로 옆에 살며 몇 백 몇 천일을 지나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하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묶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푸는 것도 그

리 어렵지는 않았으나 나무동치에 패인 상흔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말 못하는 생명이라 다행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무심했다고 변명을 해야 할지 여러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한여름의 눈부신 태양처럼 지나간 추억도 있지만, 아직도 빛바랜 빨랫줄 마냥 어딘가 남아 있을 아픈 기억도 있겠지요. 남이 받은 고통은 모른 채 그냥 할 말 했을 뿐이고, 할 바를 다했다고 돌아선 일이 솔하게 있겠지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라자로에게 이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수많은 인연으로 묶이고, 묶고 사는 우리 혹은 자신에게 뻥한 말 하나 합니다. 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마음에 묶어두고 여태껏 풀지 못하고, 혹은 풀지 않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남아야 풀 생각이 들까. 다들 알아서 풀며 살겠지라고 *지랄지곤*하고 있지는 않나? 주님은 돌을 치워 문을 여시고, 풀어 주어 가라 하시는데, 못난 제자는 여태껏 묶고 삽니다.

따사로운 은총의 햇살로 이 음습한 마음도 뽕송하게 말려 주시길 빌어 봅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끈다의 줄임말로,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으로 스스로 인생을 힘들게 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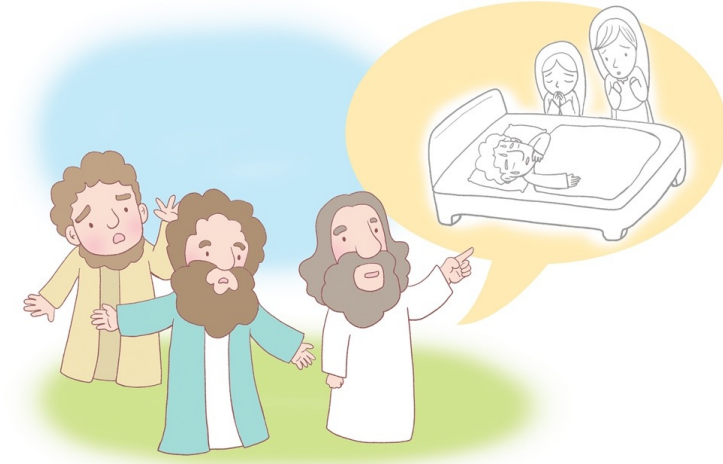


대 철 주 보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사순 제 5 주일 (2026. 3. 22.)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7,12-14

화답송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 7ㄴㄷ)



후렴.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8-11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45